

## 와이디온라인 (052770:KS)

### NDR 후기

#### 천군 5월초 국내 출시 예정

- 상반기 기대작인 3D 액션 RPG 천군: 천추의 한이 5월초 국내 출시될 예정. 작년 10월 진행된 CBT 피드백을 반영해 배경을 도시화 하는 등 상당한 수정 작업 거침.
- NU 스튜디오에서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전체적인 게임분위기는 세븐 나이트와 유사. 기존 삼국지 기반 게임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COC와 같은 약 탈시스템과 공성전 및 길드 시스템 적용.
- 4월 중순 신작 발표 쇼케이스에서 프로모션 영상 공개한 이후 4월말 OBT를 거쳐 국내 출시하고 향후 중국과 동남아 등 글로벌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

#### 1H16 갓오하 일본시장 런칭 기대감

- 갓오하의 일본시장 런칭은 천군의 국내 출시 이후 시점으로 예상. 다만 상반기 간에는 반드시 출시한다는 계획. 철저한 Localizing으로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한 セブナイツ(Seven Knights)처럼 개발초기 단계부터 일본시장을 준비 해온 만큼 긍정적인 결과 기대.
- 세로형 사이드뷰 방식과 직관적인 UI, SD캐릭터 채택했고 현지에 보편화된 성장시스템과 가차시스템 적용. 일본 퍼블리싱은 동사가 직접 담당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엔씨재팬의 마케팅 역량 및 운영 노하우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엔씨재팬은 과거 퀄리티 높은 번역과 현지 인기 전문 성우를 사용한 게임사운드로 일본에서 아이온을 성공적으로 서비스.
- 일본에서의 흥행은 현지화 구현 정도에 좌우될 전망. 넷마블은 기존의 국내 버전을 단순히 퍼블리싱했던 경쟁사들과 달리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에서 세븐나이트를 서비스 중. 일반적인 TCG처럼 오직 가차로만 캐릭터를 수집하고 속성 원소들을 경험치 강화 소재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시스템을 적용. 또한 심플한 UI와 유명 성우를 통해 캐릭터 및 스토리 텔링 강화.

#### 2016년 기대되는 신작 라인업

- 천군과 갓오하의 일본 런칭 이후에도 웹툰 IP 기반의 2D 횡스크롤 액션 RPG (3Q16)와 노블레스(4Q16)가 출시될 예정이고 과거 동사의 대표작이었던 MM ORPG 프리스톤테일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일본 알파 베가 개발 및 퍼블리싱) 출시를 통해 실적개선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Rating	Not Rated
Target Price	-
현재주가	7,760 원
Key Data	2016 / 04 / 05 기준
산업분류	KOSDAQ (게임)
시가총액 (십억원)	172.1
발행주식수 (보통/우선)	22,171,700 / 0
외국인 지분율 (%)	1.5
52 주 최저가/최고가 (원)	4,925 / 11,000
일평균 거래량(3M)	155,968
일평균 거래대금(3M,십억원)	1.0
주요주주	(%)
시니안외 1인	43.4
자사주	3.2

#### 인터넷/게임/소프트웨어

#### 이경일

shinjohyub@barofn.com

+822-6099-8505

#### Relative Performance



#### Financial and Valuation Summary

Fiscal Year	2013	2014	2015	2016E
Sales (십억원)	34.5	27.5	43.9	50.8
YoY (%)	-5.8	-20.5	60.0	15.6
OP (십억원)	5.8	-3.3	4.7	7.8
OPM (%)	16.7	-12.1	10.6	15.4
NI (십억원)	1.1	-6.0	0.9	4.1
EPS (원)	52	-273	41	184
EPS Growth (%)	흑전	적자	흑전	348.8
P/E (x)	60.3	N/A	157.3	40.4
EV/EBITDA (x)	8.6	N/A	9.8	7.0
ROE (%)	7.4	-47.1	0.7	3.1
P/B (x)	4.1	9.3	11.4	12.5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